

KIA 상승 열쇠는 헥터 ‘열세 만회’

후반기 첫 주 마운드 연착륙... 이번주 한화·삼성 원정 6연전 헥터 오늘·일요일 선발 출격... 올 시즌 양팀에 3패 부진 정성훈 2200경기 출장 -3·최형우 1600안타 -2 기록 도전

T 타이거즈 전망대

헥터의 ‘열세 만회’가 원정 6연전에 나서는 KIA 타이거즈의 키워드다. 홈 6연전으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 KIA가 대전, 대구로 이어지는 원정 6연전 길에 올랐다. 후반기 시작은 3승 3패. 절반의 성공이었다. 하위권에 있는 두 팀 삼성, kt와의 대결에서 ‘5할 승률’에 머문 것은 아쉽지만 변화의 칼을 꺼내든 마운드의 연착륙은 반갑다. 불펜의 안정세 속 이명기가 상승세를 타는 등 반등 요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화와 삼성을 연달아 만나야 하는 새로운 한 주, 헥터의 표정에 따라 팀의 표정도 달라진다.

올 시즌 KIA는 한화에 2승 6패를 거두는 데 그쳤다. 개막 후 다섯 번의 대결에서 모두 패했던 KIA는 지난 3일 홈경기에서 간신히 한화전 5연패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4일에도 6-4 승리를 거뒀지만, 믿었던 헥터가 다시 또 패전투수가 되면서 스투에는 실패했다.

헥터는 올 시즌 한화와의 경기에 3차례 선발로 나와 8.04의 평균자책점으로 2패만 기록하고 있다.

4월 12일 한화전 첫 등판에서 2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 두 번째 등판이었던 4월 25일 홈경기에서는 7이닝 2실점의 호투에도 팀 타선의 도움이 따르지 않으면서 1-2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경기는 2-3, KIA의 패배로 끝났다.

세 번째 맞대결에 나선 지난 5일에는 2회 4연속 안타로 3실점을 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리고 7회에도 연속 안타에 흔들리면서 6.2이닝 9피안타 1볼넷 4탈삼진 5실점으로 몰라났다.

적지로 가서 한화와 4번째 대결을 하는 헥터는 오는 29일 삼성전까지 두 경기를 책임져야 한다.

삼성 역시 헥터에게는 답답지 않은 상대다. 삼성전 두 경기의 평균자책점은 13.50까지 치솟는다. 물론 승 없애 1패만 기록하고 있다.

헥터는 5월 13일 첫 만남에서 3이닝 9피안타 2사구 2탈삼진 7실점(6자책)을 기록했다. 다행히 경기는 임창용의 최고령 세이브와 함께 KIA의 8-7 승리로 끝났지만, 두 번째 등판에서는 패전 투수가 됐다.

그것도 삼성의 고졸 투기 양상점과 맞대결에서 완패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KIA 야수진들의 불안한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5회에 헥터의 등판이 마무리됐지만, 양상점은 자신의 데뷔 이후 최다 이닝인 6.2이닝을 던지며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KIA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마운드를 개편했다. 선발 자리를 지켰던 팻딘이 중간 투수로 이동했고, 임창용이 대신 마운드 전면에 나섰다.

팻딘이 강행했던 두 차례 등판으로 1승 1홀드를 기록했고 임창용도 4.1이닝 2실점으로 팀 승리의 발판을 놓으며 ‘임사’ 타이틀을 떼고 선발로 보직 전환했다. 하지만 임기영이 부진으로 2군에서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선발 한 자리가 다시 비었다. 선발진 변수가 있는 만큼 헥터가 지난해와 같은 견고함으로 원정 6연전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야 한다.

한편 타석에서는 베테랑들의 기록 도전이 이뤄진다.

KBO리그 최다 경기 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정성훈은 사상 첫 2200경기 출장에 3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통산 16번째 1000타점에는 6개가 부족하다. 최형우는 두 개의 안타를 추가하면 통산 24번째 1600안타 주인공으로 이름을 남긴다. 또 11루타를 추가하면 통산 17번째 2800루타 기록이 완성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KBO중간순위 (23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93	63	0	30	0.677	0.0
2	SK	92	52	1	39	0.571	10.0
3	한화	95	54	0	41	0.568	10.0
4	LG	96	51	1	44	0.537	13.0
5	넥센	98	48	0	50	0.490	17.5
6	KIA	91	43	0	48	0.473	19.0
7	삼성	96	43	2	51	0.457	20.5
8	롯데	92	39	2	51	0.433	22.5
9	KT	93	38	2	53	0.418	24.0
10	NC	96	36	0	60	0.375	28.5

추신수 다시 출루행진

클리블랜드전 4타수 1볼넷

52경기 연속 출루행진을 멈춘 ‘추추트레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볼넷 1개로 다시 출루행진을 시작했다.

추신수는 23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벌인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무안타 1볼넷 1삼진으로 1차례 출루했다.

추신수는 지난 5월 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부터 이달 21일 클리블랜드전까지 52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하며 현역 메이저리거 최장 연속 경기 출루 신기록을 썼다.

이 기간 추신수는 아시아 출신 선수 최다 연속 출루(중전 스텀키 이치로 43경기), 텍사스 구단 단일시즌 기록(중전 홀리오 프랑코 46경기), 현역 선수 최다 연속 기록(앨버트 푸홀스, 조이 보토 48경기)을 차례로 넘어섰다.

그러나 22일 클리블랜드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기록 연장에 실패했다.

추신수는 “난 내일 다시 출루를 시작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고, 그 공언을 지켰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몰라났지만 3회말에는 볼넷으로 출루해 1사 1·2루를 만들었다. 텍사스는 다음타자 루그넬 오도어의 적시타에 선취점을 냈다.

텍사스는 8회말 오도어의 우중월 솔로포와 라이언 루아의 좌중월 2점포로 5-0 완승을 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바쁘다 바빠’

토트넘, 26일부터 미국 ICC컵 3경기 출전 내달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후엔 AG 합류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23일 팀원들과 함께 2018 인터내셔널 챔피언스(ICC)컵이 열리는 미국에 도착했다. 토트넘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LA에 도착한 선수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토트넘은 “손흥민, 크리스티안 에릭센, 에릭 라멜라 등 총 25명의 선수가 미국에서 열리는 ICC컵 대회에 출전한다”라고 설명했다.

ICC컵 대회는 프리시즌에 열리는 친선대회로 유럽 주요 클럽들이 해외전지훈련 차원에서 참가한다.

토트넘은 미국에서 26일 AS 로마, 29일 FC 바르셀로나, 다음달 1일 AC 밀란과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3경기에 모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풀타임 출전한 손흥민은 귀국할 잠시 휴식을 취하다 지난 16일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팀 훈련과 연습경기를 치른 뒤 미국으로 이동했다. 미국에서 3경기를 마친 뒤엔 영국으로 다시 이동해 8월 11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뉴캐슬전을 치러야 한다.

개막전 직후엔 자카르타로 이동한다. 그는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3세 이하 대표팀에 승선해 대회를 치르게 된다.

손흥민이 가진 무게감이 큰 만큼, 주요경기에 모두 풀타임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세 없는 이동과 시차 적응, 경기 출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프리메라리가 뛰는 게 꿈”

구단 홈페이지에 재계약 소감... “발렌시아는 내 인생”

“지난 7년을 함께 한 발렌시아는 저의 인생입니다.”

‘스페인 명가’ 발렌시아와 2022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을 끝낸 이강인(17·오른쪽)이 1군 무대인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 뛰는 꿈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이강인은 23일 발렌시아 홈페이지를 통해 “재계약을 하게 돼 아주 기쁘다”라며 “내 능력의 최고치에 다다르기 위해 매일 열심히 훈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발렌시아에 입단한 지 7년째다. 거의 내 인생의 전부와도 같다”라며 “팀 동료와 코칭스태프를 모두 나에게 잘 대해준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발렌시아 구단은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과 2022년까지 재계약한다고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무려 8000만 유로(약 1058억원)에 달하는 바이아웃 조항이다.

바이아웃 조항은 최소 이적료 규정으로 다른 구단이 계약 기간 내에 이강인을 스카우트하려면 80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해야 한다.

발렌시아가 엄청난 금액의 바이아웃 조항을 내건 것은 그만큼 이강인을 다른 구단에 내줄 뜻이 없다는 의미다.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간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은 발렌시아의 B팀인 메스티야 소속의 이강인을 1군팀의 스위스 전지훈련에 합류시키면서 언젠는 1군팀으로 호출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강인은 “처음 발렌시아에 왔을 때 꿈은 메스티야에서 뛰는 것이었다”라며 “1군 팀에 합류해 훈련하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구단이 유소년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1군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스위스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발렌시아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대높이뛰기’ 여수시청 진민섭

5m67cm 한국新...AG 金 기대감

진민섭(26·여수시청)이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지난 7월 자신이 세웠던 5m66cm 기록을 1cm 더 올리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진민섭은 지난 20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중·고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 변외경기에 참가해 5m67cm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한국기록을 세웠다.

이날 경기에서 5m30cm와 5m50cm를 모두 1차 시기에 가볍게 뛰어넘은 진민섭은 바 높이를 종전 한국기록(5m66cm)보다 1cm 높은 5m67cm로 올린 후, 3차 시기에 바를 넘으며 새로운 한국기록을 수립했다.

진민섭은 “지난달 4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자신감을 얻었고, 이후 착실히 훈련을 소화해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한국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달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5m75cm 기록과 금메달 획득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